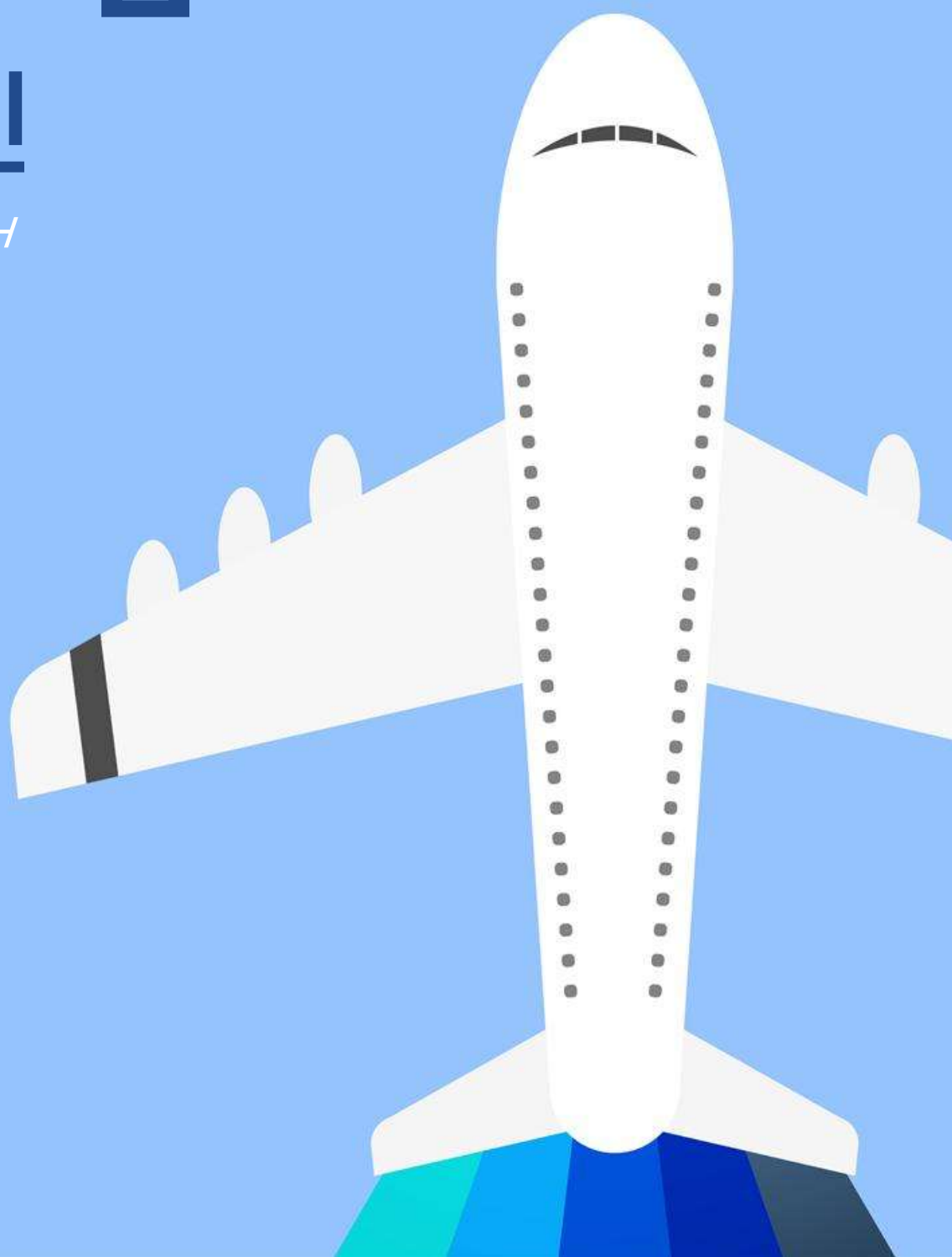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호치민

HOCHIMINH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국가 개요	3
II. 정치사회동향	5
III. 한국과의 주요이슈	8
IV. 경제 동향 및 전망	11
V. 베트남 무역 및 FDI 특징	17
VI. 한-베 교역 동향 및 특징	23
VII. 투자환경 및 입지 여건	27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34

I. 국가 개요

□ 일반 개황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 도	하노이
면 적	310060 km ²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인 구	97,582,700명 (2020년 베트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남녀 성비	49.8(남) : 50.2(여)
행정구역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5개 중앙직할시	호치민(899만명), 하노이(805만명), 하이퐁(203만명), 껀터(124만명), 다낭(113만명)
공용어	베트남어
인 종	긴족(Kinh, 전인구의 85.3%) 등 54개 민족
종 교 (2013)	종교 인구 약 2,400만 명 중 불교(45.8%), 카톨릭(27.1%), 개신교(6.3%), 기타 (20.8%) 등
기 후	북부 아열대성, 남부 열대몬순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시간)
한-베 수교일자	1992.12.22
화폐 단위	베트남동(VND, Vietnamese Dong)
환 율	1US\$ = 22,760 VND(2021. 9. 28일 시중은행 매매 기준)
정치제도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
당서기장	Nguyen Phu Trong(응우웬 푸 쩡)
국가주석	Nguyen Phu Trong(응우웬 푸 쩡)
총 리	Nguyen Xuan Phuc(응우웬 쉰언 폭)
국회의장	Nguyen Thi Kim Ngan(응우웬 티 김 응언)

□ 베트남 역사

시 기	기 간	비 고
1차 중국지배	B.C.111 - AD 972	- 중국 한나라에 복속 - 쑹 자매 봉기
전기 Le(레, 黎)왕조	980 - 1009	- Le Hoan이 송나라를 물리치고 건국
Ly(리, 李) 왕조	1009 - 1225	- 최초의 자주국가 - 이 용상 왕자 고려로 망명. 화산이씨 시조
Tran(쩐, 陳) 왕조	1225 - 1400	- 몽고침입 격퇴
후기 Le(레, 黎)왕조	1427 - 1789	- Le Loi가 명나라를 격퇴하고 건립
남북 분립기	1789 - 1801	- 북 Trinh(쩐, 鄭)씨와 남 응원(nguyen, 阮)씨 대립
응원(nguyen, 阮)왕조	1802 - 1859	- 현재의 베트남 영토 확정
프랑스 식민시대	1859 - 1954	- 아르망조약으로 프랑스 보호국으로 전락
대미 항쟁시대	1954 - 1973	- 파리평화협정(종전) - 호치민 사망(1969)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973 - 현재	- 도이머이정책(1986)

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체제와 최근 동향

□ 기본 정치 체제

- 정식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공산당 1당 정치체제 하 안정적 정권 유지 중
-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 최고권력기관, 국가 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가 최고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됨.

□ 최근 정치동향

- 베트남 정부는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머이(刷新)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속 추진함.
- 공산당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화합과 경제개혁 가속
-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및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노력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패 척결 강조
 - 농촌 및 소수민족 등 경제발전 소외 계층을 위해 농촌 개발, 빈곤 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공산당 전당대회(2021.1말-2월초)에서 현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선출됨
 - 베트남 핵심 지도부는 4인 체제가 기본이며, 당서기장(서열 1위)에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국가주석(서열 2위)에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수상(서열 3위) 판 민 쩐(PHAM MINH CHINH), 국회의장(서열 4위)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가 지명
 - 해당 지도부의 취임기간은 2021 ~ 2026까지 예정되어있음

2.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 대외관계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개방적인 외교기조를 유지
-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과 ‘개방, 다양화, 다변화’라는 기본 원칙 하 중국, 북한은 물론 미국 EU 등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
 - 1995. 7 ASEAN 가입
 - 1998.11 APEC 가입
 - 2007 WTO 가입
 - 2008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 2010 ASEAN 의장국 수임
 - 2017 제 25회 APEC 정상회담 개최(베트남 다낭시)
 - 2019.2 북미정상회담 주최(베트남 하노이)
 - 2020 ASEAN 의장국 수임

□ 사회적 특징

- 근면, 성실, 인내를 갖춘 민족으로서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국 역사에 자부심이 매우 강함.
-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함.
- 6성조를 가진 베트남어가 공용어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표기에 사용했으나, 8세기경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찌놈(Chu Nom)을 만들어 이용함. 18세기 말경 예수회 사제들이 찌놈을 알파벳으로 옮겨 쓰면서 오늘날의 베트남 문자가 일반화됨.

-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미신적 요소가 상존함.
- 전국에 850개의 지면 신문 및 언론 편집사가 존재하며, 국영 베트남 TV 외 각 성별로 자체 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음.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현지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인·허가 및 검열을 함.

Ⅲ. 한국과의 주요이슈

1. 양국 정부 관계

□ 국교 수립 및 주요 협정 현황

- 1992년 12월 :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
- 1993년 11월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2007년 6월 : 한국-ASEAN FTA 발효
- 2015년 12월 : 한국-베트남 FTA 발효
- 2017년 11월 : 2017 APEC 정상회의
- 2018년 3월 : 한국-베트남 정상회의
- 2019년 11월 : 한국-ASEAN 특별정상회의 베트남 총리 방한, 한-메콩 정상회의 최초 개최
- 2020년 11월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정치·외교

- 2020년 기준, 한국과 베트남 수교 28주년
 - 지난 28년 동안 양국은 정치·외교·경제·통상·사회·문화 등 교류와 협력의 폭이 비약적으로 성장함.
-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9년 합의)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중
- 2018.3월 한국-베트남 정상회의를 통해 ①교역 천억 불 달성 협력, ②소재부품산업 협력, ③교통 및 인프라 협력, ④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⑤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⑥고용허가제의 6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심화의 기틀을 마련함.
- 2019년 11월 한-메콩 정상회의가 최초 개최됨. 이는 2011년부터 진행되어 온 한-메콩 협의체를 격상한 회담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포함한 메콩 국가들이 이에 포함됨.

□ 경제 협력 관계

-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고 경제·문화·예술 행사를 장애 없이 교환하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과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함과 동시에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베트남은 많은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문화 측면에서는 한류의 확산거점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 시장이자 4대 교역국
 -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692.5억 USD를 달성했는데(2019년 기준), 이는 1992년 한-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140배 이상 성장한 것임.
 - 특히 베트남은 ASEAN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제 1위 교역국으로 2019년 그 비중이 45.8%에 달함.
- 투자 부문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
 - 2020년 1분기 기준, 한국의 상위 5개 투자 대상 국가(영토)는 미국, 캐나다, 케이만군도, 싱가포르, 베트남 순임. 한국은 '88.1~'20.6월 누계 683억 불을 베트남에 투자해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국으로서 지위를 유지 중
 -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 부동산, 건설, 물류 등이며, 투자금액 기준 제조업 투자 비중이 74.4%(2020년 6월 누계)로 가장 높음.
- 베트남은 한국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
 - 베트남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서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 친한 정서 및 한류

- 화산 이씨 등 역사적 유대감,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호평 받고 있음.

- 최근 베트남 내 한류는 드라마, K-pop, K-beauty, K-food 등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관광, 도서, 교육 등 그 영역이 점차 확대 중
-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는 식품, 화장품과 같은 한국 제품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 수요도 확대 추세

Ⅳ.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동향

□ 2020년 베트남 경제 요약

-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경제 성장 둔화
 - 2020년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2.91%
 - 이는 지난 10년 사이 동기 성장률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연초 발생한 코로나19 여파가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임.
 - 현지 정부가 2020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 간 이동 및 유동 인구, 미용실과 헬스장 등을 포함한 비필수 서비스 사업, 3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소집이 제한된 바 있음.



(단위 : 전년대비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전년대비 2020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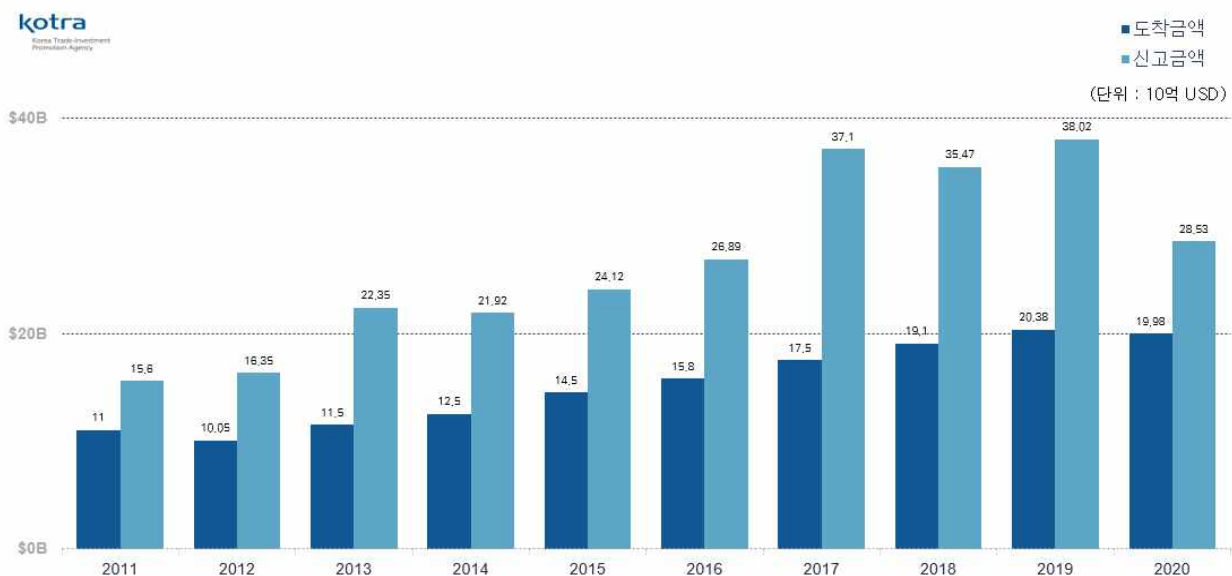
총 GDP	소비자물가 (CPI)	산업생산지수 (IIP)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FDI)
2.91% (2712억 달러)	3.23%	3.36%	수출: 7% (2814억 달러) 수입: 3.7% (2624억 달러)	-25% (285.3억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청, 투자기획부 등

○ 코로나19 여파에도 생산 무역 선방, 투자는 감소

- (생산) 구체적으로 광업부문(특히 원유, 천연가스 채굴 등) 생산이 7.8% 감소하여 산업생산 전반의 하락을 유도했으나, 제조·가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5.82% 성장하며 산업생산 전반을 견인.
이 가운데 휴대전화기 부품(22%), 텔레비전(20.7%), 가전제품(17.7%) 등 전자기기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19.5%), 야채 및 과일 가공품을 비롯한 가공식품(14.7%), 의약품 및 화학제품(27%) 등 특정 품목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교역) 2020년 베트남의 총 수출은 2,82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
총 수입액 역시 2,627억 달러로 전년대비 총 3.7% 증가
- (FDI) 2020년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총 투자 금액 : 235.8억(25%감소)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36억달러 유치(47.7%, 1위), 전력 발전 및 공급 산업이 51억달러 유치(18%, 2위)를 하여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증대와 전력소비량 증가를 나타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



자료: 베트남 통계청, 투자기획부 등

2. 경제전망

□ 2021년 베트남 경제 전망

○ 21년 베트남의 목표성장률 6.5%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었음에도 주요 경제지표들이 선방하며, 결과적으로 작년 한해 2.91%라는 성장률을 달성하였음
- 2021년도 긍정적인 평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World Bank, ADB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베트남의 성장률을 6~8%로 설정하고 있음.
- 다만,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남부지역의 장기간 락다운 조치로 인해 연초 목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

주요 기관별 2021년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2020 연말기준)

현지 정부	HSBC	IMF	ADB	World Bank
6.5%	7.6%	6.7%	6.1%	6.8%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자료: IMF Country Report

○ 베트남, 1분기 목표성장률 미달성으로 인한 2~4분기 성장률 압박

- 1분기 성장률 4.48% 달성으로, 남은 분기간 성장률이 최소 7%를 달성해야 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정부의 분기별 목표성장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1~3분기	연간
GDP	5.12%	7.11%	6.71%	6.67%	6.22%	6.43%	6.5%

- 상반기에 베트남 내부적으로도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짐에 따라, 소비와 투자부문에서의 반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관광, 서비스 산업의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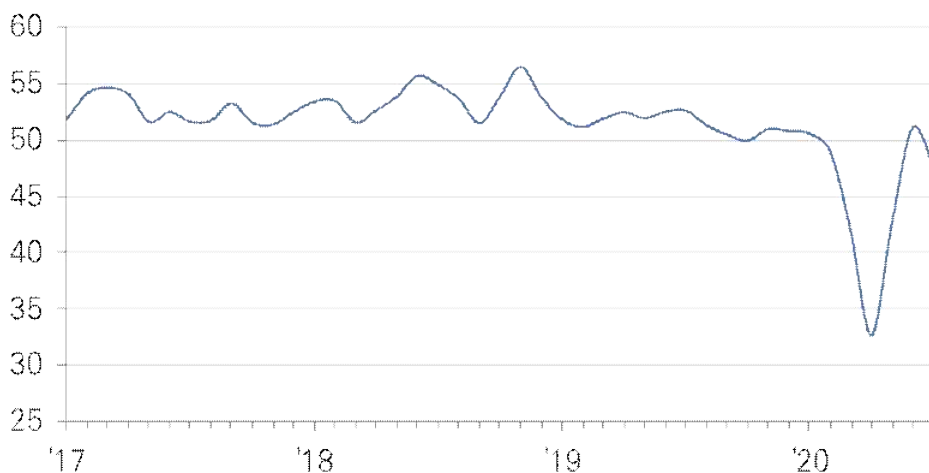
□ 베트남 경제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1) 코로나19 지속, 베트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 성장 둔화

○ 구매 주문 감소에 따른 생산 위축

- 지난 2월 IHS Markit의 베트남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로, 4년 만에 5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함. 해당 조사 기업에 따르면 당월 생산, 신규 주문, 고용 규모는 2011년 3월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음.
-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세계 전반에 걸쳐 비필수 소비재 수요가 감소하며 베트남 제조업계가 받는 주문량과 생산량 또한 줄었기 때문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사업 유지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 인원이 축소됨.
- 참고로, 신발과 가방을 포함한 의류, 생활용품, 목재 가구 등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데 생산 제품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 유럽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됨.

베트남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2017-2020.8.)



자료: IHS Markit

○ 소매유통 시장 및 서비스 산업 성장 제한

- 베트남 관광업, 요식업, 운수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계는 2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를 직접 체감함. 4월 이후 점진 회복세에 있으나,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2020년 동기 베트남 소매유통 시장 규모는 0.8% 축소됐음.

- 참고로 베트남은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고 이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7월 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서비스 산업의 활기가 크게 감소함.

베트남 방문 외국인관광객 수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3
7,898,852	10,012,735	12,922,151	15,497,791	18,008,591	3,686,779

자료 : 베트남 문화관광체육부

2) EU-베트남 FTA(EVFTA) 발효로 양자 교역 증가 기대

○ EVFTA, 2020년 8월 1일 발효

- 베트남 정부는 최근 발효한 EVFTA가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제조·가공 산업에 활기를 자극할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 중
- 코로나19 백신이 미개발된 현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시장 향방을 확정할 수 없음. 다만, 베트남이 제도적 장치로 27개 국가들과 교역 활로를 확보한 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수출입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일부 안정되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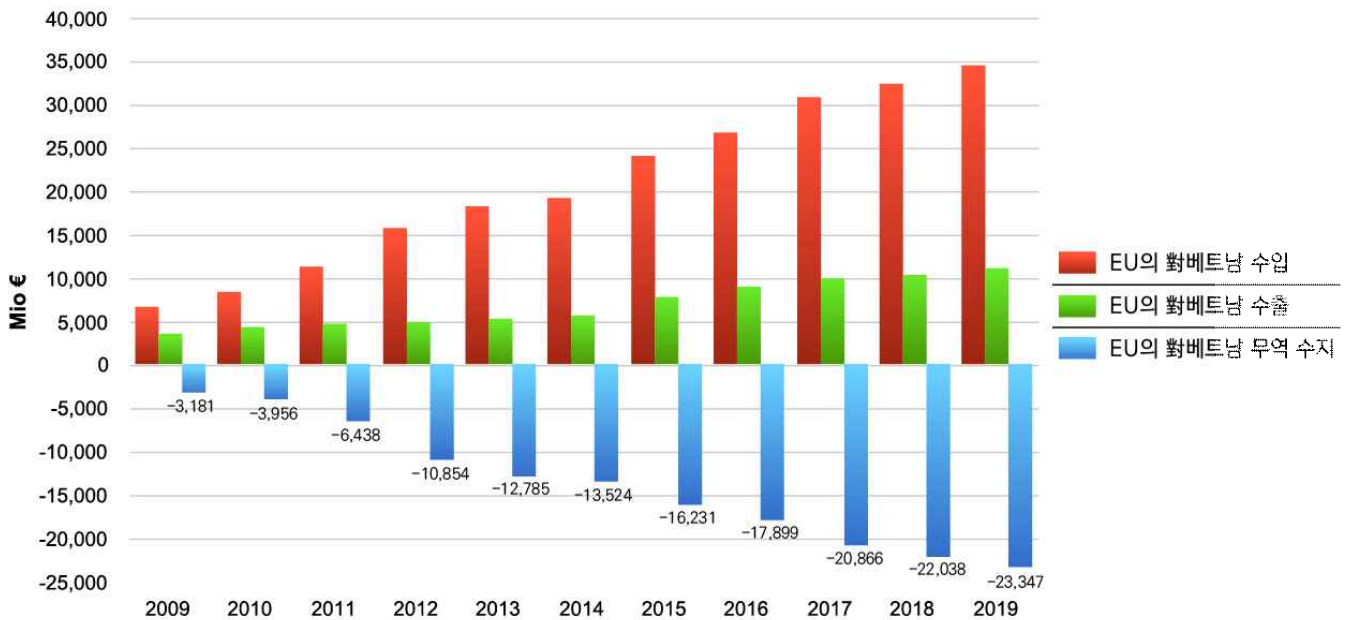
○ EU-베트남 FTA 예상 경제 효과

- 베트남에 있어 EU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
- 2020년 상반기 베트남 제조·가공 산업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EU 등 소비 시장 위축으로 구매 주문 감소 및 생산 감산을 겪었음. 현지 정부는 EVFTA 발효를 발판으로 가치부가기술 향상, 노동 자원교류 및 생산성 제고 등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구체적으로, EVFTA 발효로 EU로 수출되는 베트남 물품 70.3%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음. 7년 뒤에는 99.7%의 제품의 관세가 사라질 예정임. 특히 의류·식료품 등은 EU 시장 진출에 기회가 클 것으로 보임.
- EU의 대베트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의료, 제약, 은행, 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임.
- 이 외, 베트남의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 향상, 법적 구조 현대화, 무역 및

투자 환경 강화, 세계경제 통합 가속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EU-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U 집행위 및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3)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 가속

○ 코로나19, 베트남에 있어 공급망 변화 등 새로운 계기로

- 2019년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은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서 경쟁력에 타격을 받았음. 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안정성, 투자 인센티브 정책,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의 요인들로 베트남이 대체 생산기지로서 주목받고 있음.
- 같은 맥락으로, HSBC는 베트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9년 0.5%에서 2019년 1.4%까지 성장했으며,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점유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생산 기지를 이전한 사례로, Foxconn은 베트남에 자사 최대 생산 허브를 설치하여 Apple의 무선 이어폰 중국 제조시설을 베트남으로 분산하고, 올 3월부터 베트남 생산을 시작함. 아직 소량이나 Foxconn 제휴로 Google 또한 2020년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 모델을 베트남에서 제조할 예정임.

V. 베트남 무역 및 FDI 특징

1.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 개 황

-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수출입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꾸준한 증가, FTA 확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 통합 가속 등을 배경으로 성장세를 유지함.
- 2020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2,814.7억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624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 출	1,759	2,137.7	2,447.2	2,634.5	2,814.7
수 입	1,732	2,110	2,375.1	2,535	2,624.0
무역수지	27	26.7	72.1	99.5	191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수 출

-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은 휴대전화기 및 부품, 전기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의류제품, 신발류, 기계·설비류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특히 2014년 이래 휴대 전화기가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함. 2019년부터는 컴퓨터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부품 포함)이 섬유 제품을 제치고 수출 2위 품목으로 올라섬.
- 이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기·전자 관련 제조 산업이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매김함.

-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등임. 특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 섬유·의류제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 기록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명	2018	2019	2020.12	2021.8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35,326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21,109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31,799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23,153
신발류	16,297	18,299	16,551	12,628
수산물	8,831	8,572	8,384	5,569
목제품	8,855	10,526	12,323	10,388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7,168
철강제품	4,558	4,160	3,035	7,060
채소	3,822	3,764	3,259	3,643
기 타	67,951	71,337	76,793	55,681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213,524

주 : 2021년 2월 기준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주요 수출 국가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8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61,858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33,409
3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14,118
4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13,304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7,394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5,055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4,742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3,954
9	태 국	4,786	5,494	5,272	4,917	3,919
10	영 국	5,424	5,776	5,758	4,955	3,902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21년 9월 기준

자료 : 베트남 관세청

□ 수 입

-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각종 기계·설비 및 부품, 휴대 전화기 부품(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의류 원단, 플라스틱 원료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중간재·자본재가 중심을 이룸.
- 특히 베트남은 부품·소재와 같은 저변 산업이 취약해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이를 수입하며, 산업 경기가 호조일 때 원부자재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지님.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8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197	51,353	63,971	46,839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27	36,748	37,251	31,16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5,865	14,615	16,645	12,587
의류(원단)	12,774	13,276	11,875	9,524
철강제품	9,890	9,507	8,066	7,726
플라스틱 원료	9,066	8,991	8,397	8,046
기타 금속	7,249	6,385	6,052	5,842
플라스틱 제품	5,893	6,538	7,274	5,300

기 타	89,833	95,110	92,412	55,681
합 계	236,687	253,070	262,700	213,524

주 : 2021년 9월 기준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의 주요 수입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8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72,040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35,051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14,466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13,623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10,321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8,608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5,357
8	호주	3,182	3,984	4,456	4,677	5,231
9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4,939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4,688

주 : 2021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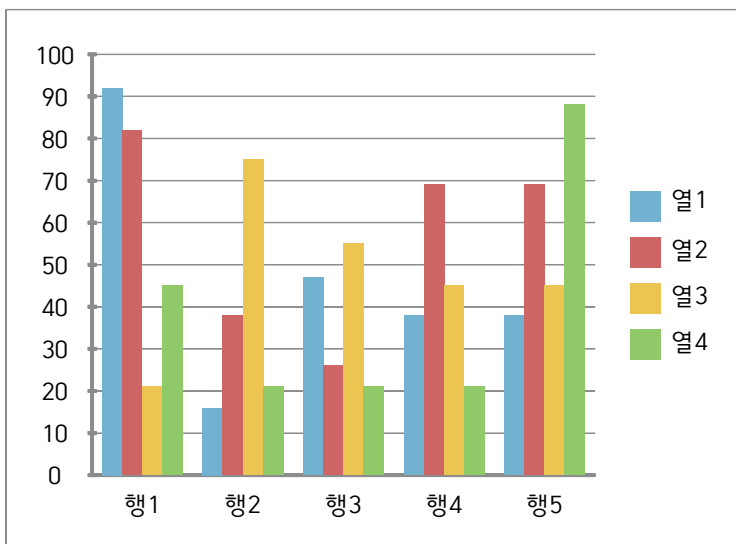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2. 외국인 투자동향

□ 개 황

○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흐름 둔화 및 이동 제한으로 FDI 움직임 감소

- 88.1월 ~ 21.8월 누계,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건수 34,072건, 총 투자금액 4,006억 달러



- 2020년 FDI 프로젝트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5%에 이르는 수준으로 위축됨.

국가별 베트남 누적 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1988. 01. 01~2021. 8.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8.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9,159	72,346.69	251	758.94	2,438.01
일 본	4,739	63,826.62	120	2,375.96	3,215.36
싱가포르	2,764	62,504.65	140	4,932.88	6,214.75
대 만	2,832	35,046.26	46	265.22	1,102.08
홍 콩	2,012	27,044.31	81	1,060.92	1,392.25
버진아일랜드(영)	873	22,194.00	20	154.21	392.59
중 국	3,267	20,266.47	137	836.31	1,779.68
말레이시아	662	13,009.15	14	15.14	116.19
태 국	632	12,921.83	24	105.74	237.47
네덜란드	381	10,354.95	16	89.32	480.06
미 국	1,122	9,695.07	51	364.12	426.90
기 타	5,629	51,403	235	366	1,327
전체 합계	34,072	400,612.68	1,135	11,325.20	19,122.28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 총 투자액은 신규투자, 증액투자, 지분투자를 모두 합한 금액임.

- 2007년 WTO 가입에 따라 유통업, 무역업, 요식업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분야가 개방됨. 이에 따라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투자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일부 조건부 투자분야 유지)

對베트남 산업별 FDI 투자 동향

구분		2021. 8.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8.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468	235,699.40	374	4,443.07	9,252.94
2	부동산경영	974	61,234.81	38	982.02	1,573.09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170	33,908.91	17	5,131.37	5,493.83
4	호텔, 외식서비스	895	12,549.48	11	33.79	139.33
5	건설	1,764	10,750.59	18	54.16	180.03
6	도소매; 유지보수	5,467	8,817.32	323	189.53	734.17
7	물류운수	896	5,727.10	30	353.17	693.50
8	채광	107	4,894.76	-	-	1.47
9	교육, 양성	603	4,429.40	21	8.57	30.69
10	정보통신	2,411	4,053.58	95	27.70	175.91
11	기술과학전문	3,697	3,961.75	171	64.44	573.31
12	농, 임, 수산	509	3,681.74	9	31.10	102.67
13	예술 오락	137	3,392.34	1	0.13	0.90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0	2,895.03	1	1.01	83.1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999.85	-	-	2.70
16	행정, 지원 서비스	512	973.56	25	4.99	24.09
17	기타서비스	145	847.80	1	0.15	2.93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57.63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합계		34,072	400,612.68	1,135	11,325.20	19,122.28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 기존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원부자재 수입 후 가공, 수출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가 대부분이었음. 최근에는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 트렌드가 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으며, 현지 정부도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유치를 우대하고 있음.
- 베트남 2020년 투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회사의 정의 수정, 더욱 명확한 투자조건 제시, 투자절차 간소화 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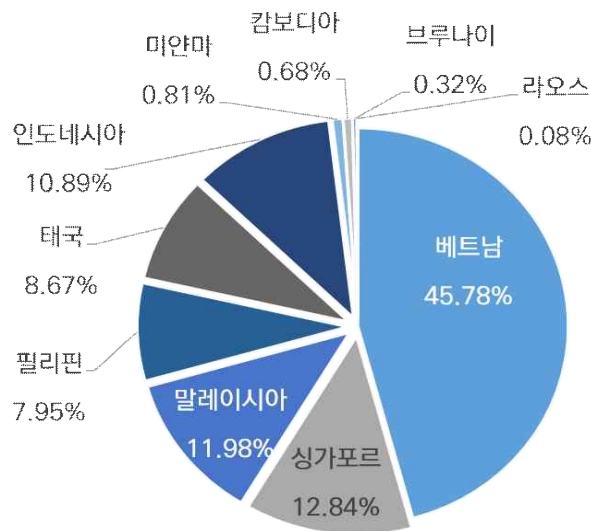
- 현행 투자법(Law No. 67/2014/QH13)을 대체할 2020년 투자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다만, 최근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노동비자 발행요건 강화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진출 이후 추가 행정절차 및 비용이 발생중

Ⅵ. 한국과의 교역 동향 및 특징

□ 한-베 교역 동향

-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 2019년 기준 한국의 대ASEAN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8%이며 그 외 투자, 인적교류, 관광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제 1의 협력국가로 자리 잡았음.
 -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ASEAN 국가별 교역 비중(2019년)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베트남 방문 한국인 관광객 수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3
1,152,349	1,543,883	2,415,245	3,485,406	4,290,802	819,089

자료원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 베트남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중국, 미국, 베트남 순)이자 4대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한국의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
 - 양국 교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140배 이상 증가함(1992년 5억 달러 → 2019년 692억 달러 교역액 달성)
 - 우리나라는 대베트남 무역을 통해 매년 큰 액수의 무역 흑자 기록 중 (2019년 무역 흑자 271억 달러, 2020년 상반기 무역 흑자 135억 달러)
- 한국-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에 발효돼 2020년 기준 6년차를 맞이함.
 - 베트남의 세계 시장 편입 추세(EVFTA, CPTPP 등)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입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베트남의 해외 수출 시장 접근 및 품목 다양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 10대 수출대상국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10년		2018년		2019년		2020년	
중국	116,837	중국	162,125	중국	136,202	중국	132,565
미국	49,816	미국	72,719	미국	73,343	미국	74,116
일본	28,176	베트남	48,622	베트남	48,177	베트남	48,511
홍콩	25,294	홍콩	45,996	홍콩	31,912	홍콩	30,654
싱가포르	15,244	일본	30,528	일본	28,420	일본	25,098
대만	14,830	대만	20,783	대만	15,666	대만	16,465
인도	11,434	인도	15,606	인도	15,096	인도	11,937
독일	10,702	필리핀	12,061	싱가포르	12,768	싱가포르	9,828
베트남	9,652	싱가포르	11,782	멕시코	10,927	독일	9,576
인니	8,897	멕시코	11,458	말련	8,843	말레이시아	9,078

자료 : 관세청 통계, KOTRA 호치민무역관 정리

□ 주요 수출 품목

-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확대되며 이들의 현지 생산 활동을 위한 기계·설비류 및 원부자재 수출도 증가했음.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중간재·자본재의 비중이 소비재보다 높음.
 - 특히 한국의 대베트남 최대 투자 산업인 전기·전자 관련 품목 비중이 높음.
 - 주요 품목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 석유제품 제품 등
- 한국-베트남 무역 거래 시 한-베트남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중 혜택이 더 높은 것을 선택해 활용 가능함.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기 타	18,808	15,874	16,187	14,998
합 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주 : 2021년 2월 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주요 수입 품목

- 2020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5대 수입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이며 총 수입액 대비 50% 이상 비중을 차지함.
- 특히 의류, IT기기, 신변잡화 등의 공산품은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 투자 기업들로부터 역수입이 주류를 이룸.
- 아울러 베트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베 FTA에 따른 관세 혜택으로 교역 품목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기 타	5,279	6,197	6,330	6,473
합 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주 : 2021년 2월 기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Ⅶ. 투자 환경 및 입지 여건

1. 투자 환경

□ 장점 및 기회요소

- 정치사회적 안정성
 - 베트남은 중국, 인도 및 ASEAN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은 공산당 1당 체제이며 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 거의 없음.
- 비용 경쟁력이 높고 풍부한 노동력
 - 동남아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인구(약 9,621만 명), 높은 젊은 인구 비중(만20~39세 인구 32.5%) 등 미래발전형 인구 구조를 가졌으며, 문맹률이 3% 미만임.
 - 유엔인구기금(UNFPA)은 베트남이 '황금 인구구조'로 진입했다고 평가(황금 인구구조란 만 16~59세의 노동 인구수가 비노동 인구의 두 배 이상인 시기를 말함).
 - 또한 대체적으로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경쟁력이 높은 인건비 역시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거점
 - 중국의 인건비 상승, 환경 등 각종 규제 강화,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등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 추세.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체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주목
 - 일본 기업들은 China+1의 전략 하에 캐논 등 많은 전자부품회사들이 진출했으며, 삼성과 LG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역시 베트남에 진출함.
 - 특히 베트남은 최근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 이전 반사이익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높은 경제 성장률과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 유망성
 - 최근 5년간 베트남 GDP 성장률은 6~7%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음.

- 1인당 GDP는 2008년 1,000 달러대를 진입한 후, 2018년 2,500 달러를 넘었으며, 이를 따라 구매력이 역시 확대되고 있음.
- 2025년 전후 현지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하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 WTO 가입 이후 서비스 개방 일정에 따라, 유통, 무역,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차별을 줄이는 등 베트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지속 중

○ 적극적인 무역 및 경제 협정 참여에 따른 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ATGIA(아세안상품무역협정), ACFTA(중-아세안), AKFTA(한국-아세안), AJCEP(일본-아세안), VJEPA(일본-베트남), AAANFTA(베트남-호주-뉴질랜드), AIFTA(인도-아세안), VCFTA(칠레-베트남), VKFTA(한국-베트남), VEFTA(EU-베트남) 등의 다양한 양자간·다자간 FTA를 체결해 글로벌 경제 편입 속도를 가속화 중
-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EU-베트남 FTA 발효 등 시장 개방이 지속 확대되어 이로 인한 다양한 사업기회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 약점 및 위험요소

○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외국인 투자 수요 대비 부족하며, 서비스 품질도 개선의 여지가 큼.
- 인프라 구축 비용 대부분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의 공적개발원조로 충당해왔으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인프라 완공 일정이 종종 변경되곤 함.

○ 고급인력 부족

- 하노이 및 호찌민시 인근을 제외하고는 외국어 능숙자 및 중간관리 인력 확보가 수월하지 않음.

- 베트남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숙련되고 고등 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최근 첨단기술 및 전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전문 인력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인력 공급은 제한적
- 복잡한 행정절차, 행정체제 미흡 및 커미션 문화
- 베트남 법령은 세부 시행규칙 및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담당 공무원의 유권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또한 지역별 법규 적용에 차이가 있어 투자 활동 시 행정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함.
 - 또한 많은 거래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화가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로 Under Table Money 관행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음.
 - 참고로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 중 37점으로, 180개국 중 96위를 차지함.
 - 베트남 현정부는 부패방지법 개정(2019년 발효)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 중
- 투자 및 경영비용 증가
-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공장 설립에 필요한 토지임차료, 인건비 등 투자 진출 관련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 추세
 - 베트남 정부에서 물가억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경제성장 및 FDI 증가로 투자 비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
- 부품 및 원부자재 수급 애로
- 지금까지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단순 임가공 형태를 띠었으므로 베트남은 부품·소재 등의 기반산업이 매우 취약함.
 - 원부자재 수입관세가 매우 낮거나 면제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적시 공급 및 물류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국내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아직은 낮은 소비력과 가격 중심 시장
- 9,600만 명 이상의 풍부한 인구와 소비자 개인의 경제 수준은 별개이며,

이들의 소비 규모가 성장하기까지 투자금 투입과 시간 인내가 지속 요구되는 시장임을 고려해야 함.

- 일부 지역(특히 호찌민시와 하노이 같은 중앙정부직할시)의 소득 수준은 국가 평균 대비 2~3배가량 높음. 드러나지 않는 지하경제까지 고려한다면 현지 일부 지역의 소비자 심리는 표면에 드러난 평균 소득에 한정돼 있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점 베트남인의 평균 소득 수준은 연간 3,000달러 언저리이며 지역별 소비자의 경제력에 큰 편차가 있다는 시장의 이면을 감안해야 함.

2. 입지 선정

□ 고려 요소

○ 물류여건

- 항만, 도로사정이 열악하며, 국내 물류시스템이 미흡해 부품원자재 및 상품의 하역·운송 등의 물류여건이 좋지 않음.
- 내륙에 위치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방문을 해보면 물류 이슈가 자주 발생함.

○ 인프라 정비

- 대부분의 산업공단(IZ, IP)은 비교적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외곽으로 나갈수록 토지 임차료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미비로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함.

○ 노동인력 수급

- 산업발전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노동력 인력수급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특히 주변 공장 완공 시 노동력 확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문제로 이어짐.

○ 현지 자재와 부품조달의 용이성

- 현지 원부자재 공급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운송비용이 과다해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 입지 선택 시 진출업종에 소요되는 부품과 자재를 인근 지역에서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함.

○ 기타 고려요소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및 배후시장 여건
- 환경오염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투자 지역 선정

○ 남부지역 vs 북부지역

베트남 남부, 북부지역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남부 (호찌민시 중심)	- 소비 문화 발달 - 높은 1인당 GDP (약 6,000~7,000달러 추정) -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 섬유, 신발 산업 발달	- 인건비 상승 추세 (호찌민시 인근) - 높은 토지 임대료 (호찌민시, 동나이 등) - 인력확보 애로(호찌민시 인근)
북부 (하노이 중심)	- 베트남 정부의 수도 개발 계획 (특히 건설 인프라 분야) - 전기 전자 산업 발달 - 중앙정부 접촉 용이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력 수급 문제 - 남부 대비 낮은 소비력

○ 공단지역 vs 일반지역

- 공단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함. 다만 임대료가 높고 관리비를
부담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음.
- 일반 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 또는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음. 다만 토지 임차료와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보상비를 지방 정부에 지불해야 함. 사유지는 토지용도, 증빙 서류 확인 등 행정부분에서 주의를 요함.

-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정책적으로 공단 외 지역 투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단 이외 지역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해당 인민위원회에 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함.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 조건 비교

구 분	승인기관	장 점	단 점
공단	지방정부 공단관리 위원회	- 인프라 기반 - 인허가 수속 대행 - 물류여건 양호 - 토지보상비 부담 없음 - 세관입주 공단은 수출입 통관 편의	- 높은 토지임차료 - 관리비 부담
일반 지역	지방 인민위원회 기획투자부 (DPI)	- 저렴한 토지임차료 - 인력확보 용이 - 비교적 낮은 인건비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허가 수속 직접수행 - 물류여건 낙후 - 토지보상비 부담 - 부대비용 발생 가능

○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 경제특구는 투자자를 위한 특별우대 및 기존의 투자사업 환경과 분리된 경제지구로서, 베트남 총리가 지정하며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중부 지역에 밀집
- 경제특구는 산업제조, 서비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상업, 은행, 금융의 허브 역할을 위한 특구이며, 규모는 10,000ha 혹은 그 이상
- 비관세지역, 관세지역, IZ, EPZ, 관광지역, 도시지역, 복합주거지역, 행정 본부 지역 등 다양한 기능적 성격을 띤 지역으로 구성
- 지역에 따라 우대혜택 적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사전문의 필수

○ 법인세 우대사항

- 베트남의 표준법인세율은 20%임(단,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2~50%의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은 투자 분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공단에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법인은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최대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최대 4년간 법인세 50% 감면 가능
- 그러나 해당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에 속하면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공단관리 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함.

Ⅷ. 기타 유용한 정보

□ 시장 특성

- 풍부한 인구와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9,700만 명에 육박하는 풍부한 인구와 매년 6~7%씩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시장 규모 지속 확대 중
 - 특히 젊은 20~30대 및 소득이 높은 40대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특성은 베트남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5년 전후 인구 1억 돌파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으로 성장 기대
- 민영화 진전 불구 국영기업 영향력 여전
 - 베트남 국영기업은 현지 시장에서 50~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
 - 특히 전력, 통신, 석유·가스, 방송 등의 분야에서 거의 100%에 달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함.
 - 베트남 현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마스터플랜(2016~2020년)을 바탕으로, 공기업 민영화·주식화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중
- 주요 대도시에 경제력 및 구매력 집중
 - 지역별 소득 격차가 심해 고가 브랜드 제품 수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함.
 - 베트남 인구 중 18%가 북부 하노이, 남부 호찌민시에 분포해 있으며 두 도시 소득은 현지 평균 대비 1.5배 높음.
 - 경제 중심지인 호찌민시의 1인당 소득은 연간 약 6,700달러로 추정됨. 이는 베트남 평균의 2~3배 수준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1인당 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불과하지만 두터운 고소득층이 존재해 고가품 시장이 발달함.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에 민감
 - 소비재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지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로 무조건 저렴한 제품보다는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강조된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높은 브랜드 선호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음.
 - 베트남은 한류 문화가 성숙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 특히 TV,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제품 인지도가 높으며 삼성(이동통신기, 가전 등), LG(가전, 화장품, 생활용품 등), 현대·기아(자동차) 등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투자한 주요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
 - 유명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 또는 위조품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지적권 보호 관련 현지 정부 차원의 규제는 아직 개선 여지가 큼.
- 아세안 10개국 제품 수입 시 무관세 적용
 - 아세안 수입 제품은 아세안물품무역협정(ATIGA) 적용으로 대부분 0~5% 이내의 낮은 관세가 부과됨.
 - 한국산 제품(특히 소비재)은 AKFTA(한-아세안, 2007년 발효), VKFTA(한-베, 2015년 발효) 적용으로 일반특혜관세(MFN)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지만 ATIGA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 적용 대상임.

□ 베트남 기후 특성

-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큰 편이며 강우량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1,800mm 정도 기록함.
 - 호찌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우기(5~10월)와 건기(11~4월)가 6개월씩 교차되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미묘한 4계절의 변화가 있어 연말과 연초 기후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함.
 -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가 약 20℃에 달하는 지역도 있음.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임.
- 호찌민시는 연중 30~35℃의 고온을 유지하며, 건기 또는 우기에 맞는 복장 준비가 필요함.
 - 건기(11월~4월) : 여름 의복에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우기(5월~10월) : 게릴라성 호우가 잦으므로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시차 및 근무시간

- 베트남은 GMT+7 시간으로 한국보다 2시간 늦음.
 - 한국이 12:00일 때 베트남은 10:00
- 관공서와 은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만, 일반 사기업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곳들이 존재함.
 -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07:30~16:30이며, 일반 기업은 08:00~17:00임.
 - 점심시간은 대개 11:30~13:00 또는 12:00~13:30이며, 점심시간 동안 오침 문화가 있음.
- 상점과 식당 등 업소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08:00에서 22:00까지며, 야간 업소의 경우 24:00까지 영업

□ 현지 활동 참고사항

- 출입국
 - 한국인은 베트남 출국 항공권 및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을 소지 한 경우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 후에 현지에서 연장을 하려면 여행사 보증이 필요함.
 - 그러나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일부 특수 상황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유입을 일시적으로 금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17년 2월부터 온라인 비자(e-Visa)를 시행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출국 시 최대 휴대 가능한 금액은 5,000 미국 달러
 - * 참고: 호찌민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주소: 161 Nguyen Du St, D.1, Ho Chi Minh
 - 전화: (84-28) 3829-9398
 - 팩스: (84-28) 3824-4075
- 교통
 - 버스와 택시가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나, 버스는 외국인이 이용하기 까다로울 수 있음. 지하철은 현재 공사 중(2021년 개통 목표)

- 택시 요금은 미터제로서 기본요금은 11,000~12,000동으로 회사마다 상이함(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15~20만동 : 6~9불 수준).
- 주요 택시회사로는 Mai Linh(녹색바탕, 38383838 번호 표시)택시와 VINASUN(하얀 바탕, 하부 녹색, 38272727 번호 표시) 택시가 있음.
- 최근에는 목적지 및 금액이 정해진 그랩(Grab), 타다(TADA), 비(Be) 등 차량 공유 모바일 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환전 및 신용카드

- 화폐 단위 : Vietnam Dong(동, VND로 표기)
- 화폐 종류 : 천동, 이천동, 오천동, 만동, 이만동, 오만동, 십만동, 이십만동, 오십만동이 있으며, 모든 지폐에는 호치민 초상이 있음.
-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및 시중에 설치된 환전소 등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은행 환전을 제외하면 여권 없이도 환전이 가능함.
- 카드 결제는 호찌민시,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점차 확장 중임. 다만, 아직 소규모 카페나 식당에서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곳을 종종 찾아볼 수 있음.

○ 위생 및 질병

- 석회질이 다량 포함된 현지 수도물 대신 생수 사용을 권함.
- 식당에서 음료, 맥주를 시키면 얼음을 넣어 주는데 위생이 걱정된다면 주문 전 얼음을 넣지 말라고 요청해야 함.
- 열대숲모기에 물리면 이를 매개로 고열을 동반하는 열성 급성질환인 뎅기열(Dengue Fever)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함.

○ 치안

- 베트남은 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하나 보행 중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 주거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
- 야간에는 단독 행동을 삼가고 골목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매춘, 마약, 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절대 금물임.

○ 팁 관행

- 베트남에는 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택시 이용 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음.
- 호텔 벨보이나 메이드에게 주는 팁은 2만~5만 동(1~2.5 달러 정도) 선임.

□ 기타 주의 사항

○ 선교·포교활동 금지

-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나, 현지 풍속 및 관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 집회 또는 노상의 종교 활동은 베트남 정부가 엄격히 통제함.
-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는 포교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발각 시 추방 등 강경제재 조치를 받게 됨.

○ 관공서 관행

- 베트남 관공서의 업무처리 방식은 아직 많은 외국인들에게 만족도가 높지 않음. 특히 잦은 서류 보완 요청, 고자세,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불만을 야기하곤 함.

참고 호찌민시 식당 정보 및 주요 관광지

□ 한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대장금(한식)	1st Fl M Plaza, 39 Le Duan, Dist.1	(84-28)3825-7974
최고집(한식)	161 Ham Nghi, Dist,1	(84-28)3914-2005
경복궁(한식)	52 Hai Ba Trung st, Dist,1	(84-28)6682-7249
본가(한식)	45 Ly Tu Trong st, Dist,1	(84-28)90-1317335
아리랑(한식)	3rd Fl, 2 Dong Khoi St, Dist,1	(82-28)3823-1983
청담육화점(한식)	63 Ho Tung Mau, Dist,1	(82-28)6275-3273

□ 베트남 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Maxim's Nam An	13-15-17 Dong Khoi, Dist.1	(84-28)3829-6676
Mandarine Restaurant	11A Ngo Van Nam, Dist.1	(84-28)3822-9783
Tib	187 Hai Ba Trung, Dist.3	(84-28)3829-7242
Dong Pho	57 Ho Xuan Huong Dist,3	(84-28)3930-7665
Nha Hang Ngon	160 Pasteur, Dist.1	(84-28)3827-7131
Quan Nem	15E Nguyen Thi Minh Khai, Dist,1	(84-28)6299-1478
Pho2000(쌀국수)	1-3 Phan Chu Trinh, Dist.1 (2nd Floor)	(84-28)3822-2788
Pho Hoa(쌀국수)	260c Pasteur St, Dist.3	(84-28)3829-7943

□ 호찌민시 인근 주요 관광지

구분	사진	주요 포인트	거리
통일궁 (Dinh Doc Lap)		135 Nam Ky Khoi Nghia, Dist 1, HCMC - 과거 남베트남(자유진영)의 대통령궁으로 현재는 개방되어 관광지, 회의장소로 사용 8:00~17:30 개장(연중무휴) - 관람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소요 - 입장료(성인) : 40,000VND(약 1.7 달러)	호찌민 시내 (10분)
전쟁 박물관 (Bao Tang Chien Tranh)		28 Vo Van Tan, Dist 3, HCMC -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단두대를 비롯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되었던 각종 유물 전시 - 고엽제 피해 및 전쟁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수많은 화보가 있음 7:30~16:30 개장(연중무휴) - 입장료 : 40,000VND(약 1.7 달러)	
호치민 박물관 (Ben Nha Rong)		1 Nguyen Tat Thanh, Dist 4, HCMC - 호치민이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 전시 - 프랑스와 중국의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1863년에 완공했으며 한 때 프랑스 총독부 영빈관으로도 사용 7:30~11:30, 13:30~17:00 개장(화~토) - 입장료 : 2,000VND(약 0.09 달러)	
노틀담 성당 (Nha tho Duc Ba)		1 Cong xa Paris, Dist 1, HCMC 1880년에 세워진 호찌민 시 최대성당 -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건축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 파리 노틀담 성당을 본떠 만들 8:00~10:00, 15:00~16:00 개장(매일)	
다이아몬드 플라자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 1, HCMC - POSCO가 지은 호찌민시 랜드마크 빌딩 1~5층은 백화점이며 나머지는 오피스 및 아파트 - KOTRA 호찌민 무역관 7층 입주	
비텍스코 (Bitexco)		2 Hai Trieu, Dist 1, HCMC - 현대건설이 지은 초고층(68층) 빌딩 - 스카이라운지를 통해 호찌민시를 한 눈에 조망가능 - 라운지입장료 : 200,000 VND(약 8.5 달러)	

구분	사진	주요 포인트	거리
벤탄 시장 (Cho Ben thanh)		▪ Le Loi, HCMC ▪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전통적 관광명소 ▪ 의류부터 식료품까지 다양한 제품 판매 ▪ 저녁 7시 이후 주변에 야시장(식당, 기념품)이 열림 * 코로나19 이후 야시장 포함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게가 증가함	
사이공 스퀘어 (Saigon Sqaure)		▪ 77~89 Nam Ky Khoi Nghia, Dist 1 ▪ 7 Ton Duc Thang, Dist 1, HCMC ▪ 176~181 Hai Ba Trung, Dist 1, HCMC ▪ 우리나라의 밀리오레와 유사한 쇼핑센터 ▪ 명품 이미테이션 등을 주로 판매 *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게가 증가함	
구찌 터널 (Dia Dao Cu Chi)		▪ Cu Chi Dist, HCMC ▪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에 사용된 터널 ▪ 현재는 관광용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당시 보다는 터널 크기를 다소 크게 조정한 상태 ▪ 입장료 : 외국인 80,000 VND(약 3.5 달러)	5시간 (왕복)
메콩 델타 (Mekong Delta)		▪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 (벼의 3모작 가능) ▪ 조그만 배를 타고 메콩 델타의 곳곳을 구경한 후 간단한 기념품 구매 가능 ▪ 투어 비용 : 약 400,000 VND(약 17.5 달러, 호찌민시 여행자 거리 출발) ▪ 여행자 거리 : Pham Ngu Lao st, De Tham st, Dist 1, HCMC	5시간 (왕복)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